

□ 복구지원사항

지 원 부 문	지원기간	지 원 및 활 동 내 역	비고
· 침수가구 주택수리비지급	2001.7.18~7.23	· 주택수리비 4,662가구 419,580만원	
· 구호품지급	2001.7.18~7.23	· 모포 721장, 생필품 400개 · 운동복 800장, 스티로폼 210개 · 세제 500세트, 라면 120BOX · 빵 등 1,850개 · 식사 650인분, 기타 50	
· 침수가구 생필품지급	2001.7.19~7.20	· 침수 5,000가구에 150,000천원 상당 생필품 지원	
· 침수지역 방역활동	2001.7.15~7.21	· 25개 반 69명 투입 · 10,338세대 방역	
· 사전제품 무상수리 실시	2001.7.16~7.20	· 삼성전자의 2개사 참여 2,091건 수리	

□ 대규모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구추진)

- 도림1,3 빗물펌프장 배수용량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증설(서울시에 요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안)

의 안 번 호	관 련 189호
------------	-------------

발의년월일 : 2001. 9. 15

발 의 자 : 신길철의원외 8인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택가에 자동차 대기오염을 가져오고 가시권, 조망권을 침해하며 또한 제방공사시 위험이 있어 생존권에 침해되니 공사계획을 즉각 중지토록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건의문으로 재촉구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계획을 시행할 경우 우리 관내 안양천을 통과함으로써 4개의 고속화 도로와 4개의 한강대교가 통과하는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교통문제와 하루 수 십 만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택가(아파트)의 피해는 물론

- 나. 자동차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기간중 소음 및 분진발생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고 높은 고속도로로 인해 가시권, 조망권 등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요구와 우리 영등포구의회회의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 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41만 영등포구민과 더불어 서울 서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촉구 건의하고 자 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관한수정재촉구건의문

(영등포구 양평1동, 양평2동, 문래2동 구간)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5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에 관한 건의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재촉구 건의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 교통의 원활과 남·북간선 축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연계체제로 교통량분산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강서구 염창동(염창IC)에서 강남구 일원동(수서IC)까지 폭 4~6차로, 연장 34.8km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2조 600억 원을 투입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2001년 12월경 착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우리 관내 안양천을 통과함으로써 이미 4개의 고속화도로와 4개의 한강대교가 통과하는 영등포구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교통문제와 하루 수 십 만대의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택가(아파트)의 피해는 물론

자동차 대기오염 그리고 공사기간중 소음 및 분진발생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높은 고속도로로 인한 가시권과 조망권의 침해로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친 주민요구와 우리 영등포구의회회의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41만 영등포구민과 더불어 서울 서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촉구 건의한다.

1. 1999. 7. 26 서울특별시장이 관련구청에 보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계획 통보와 주민공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에 의하면 수신처가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구 등 7개 구로 되어 있고 영등포구는 없는 바, 이는 당초 노선계획이 양천구 쪽으로 되어 있고 영등포구 쪽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특별시장이 노선계획 통보와 주민공청회 개최 협조를 해당지역 구에만 보내고 영등포구는 안 보낸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공청회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만든 기본계획에 안양천 좌안(양천구)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영등포구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안양천 우안(영등포구)으로 변경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 당초의 원안대로 안양천 좌안(양천구)으로 노선을 환원해야 한다.

2. 안양천 둔치상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및 편익시설 그리고 보도육교설치(3개소)공사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3. 각종 시설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가의 소음, 대기,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4. 특히, 해당지역은 공원 하나 없는 환경취약지역으로 집단민원이 되고 있어 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며 주민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즉각 공사계획을 중지시켜야 한다.
5. 또한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청으로 보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관련 노선조정 건의(2000. 10. 9, 2000. 12. 15) 및 주민요구사항 보고(2001. 3. 9)등 3건의 공문 내용중 안양천 둔치상에 건설해 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 당초 계획대로 안양천 좌안(양천구)으로 해야 한다.

2001. 9.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일동